일면 스님 “80년 삶, 자비행으로 회향”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⑨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출판 봉정법회

9월 14일 산수연 및 출판 봉정법회
회고록 통해 자비행 의미 되새겨
67년 수행·종단 활동 발자취 담겨
“다시 받은 몸, 생명 살리는 데 매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14일 앰베서더서울 풀만호텔에서 ‘두산 일면 대종사 산수기념 출판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일면 스님과 보선·철웅·정여·돈관·호명·혜수 스님 등이 단상에 올라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모습.



봉정법회에는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해 회고록 발간을 축하하고 일면 스님의 원력 성취를 기원했다.



일면 스님은 해외지원 기금과 (재)해인동문회 장학금으로 각각 1000만원 씩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꼽은 ‘생명나눔’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원력을 다졌다.

80년 인생 가운데 67년을 출가 수행자로 살아온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그 길에서 실천해 온 자비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꼽은 ‘생명나눔’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원력을 다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14일 앰베서더서울 풀만호텔에서 ‘두산 일면 대종사 산수기념 출판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일면 스님의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출간을 기념하고 출가 이후 수행과 종단 활동, 생명나눔 실천으로 이어온 삶을 되돌아 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 원로의원 보선 스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불일문도회 스님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주호영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김용림·김흥국 생명나눔 홍보대사를 비롯한 임원들, 불암사 신도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1959년 출가해 조계종 교육원장, 초대 군종교구장, 동국대 이사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원 및 부의장, 광동학원 이사장 등 종단 안팎의 주요 소임을 맡으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활동했다.

그 가운데 일면 스님이 가장 큰 보람으로 꼽은 것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의 인연이었다. 간이식을 경험한 바 있는 일면 스님은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받은 몸, 생명을 살리는 데 매진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보답이라 여기고 법인 성장에 매진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운동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1300여 명에게 45억원의 치료비 등을 지원했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9만여 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 7만 명, 법인 회원 25만여 명 규모로 성장했다.

산수를 맞아 출간한 〈생명나눔, 일면입니다〉에는 이 같은 일면 스님의 67년 출가 수행과 종단 활동, 생명나눔의 발자취가 담겼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륜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봉정법회는 일면 스님 헌정 영상 상영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영상에는 일면 스님의 출가시절부터 최근까지 67년간의 발자취가 담겼다.

이어진 봉정식에서는 일면 스님과 보선 스님, 철웅 스님, 정여 스님, 돈관 스님, 호명 스님, 혜수 스님 등이 단상에 올라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1959년 13살에 걸망을 지고 탁발 나온 스님을 따라 부처님께 귀의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부처님 은덕으로 살아온 세월”이라고 지난 삶을 회고했다. 이어 “평생 부처님과 시주 은혜를 갚는다는 원력으로 살아왔지만 이 또한 인연 따라 생겼다 소멸하는 불법의 이치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제아무리 거창한 불사라 해도 흘러가는 물에 비친 달과 같은 수월도량(水月道場)임을 여든을 맞이하고 보니 더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내세울 것 없는 삶이지만 지난날 자취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냈다”면서 “유일한 자랑은 출가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 제자로 조계종도로 남은 것이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 역행보살의 마음으로 냈으니 모쪼록 여러분은 저와는 반대로 살면 성공한 삶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해 유쾌함을 더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면 스님의 산수를 축하하며 지난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나눔을 향한 원력이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은 “일면 스님 삶 자체가 보살행”이라고 치하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일면 스님과의 60여 년 인연을 회고하며 “일면 스님이 만들어온 생명나눔의 큰 물줄기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문도를 대표해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일면 스님의 나눔의 뜻을 잘 새겨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해외지원 기금과 (재)해인동문회 장학금으로 총 2000만원을 전달하며 산수의 의미를 나눔으로 되새겼다.

행사는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의 ‘화선무’ 공연과 불암사·보현사 연합 합창단의 축하 음성공양으로 이어지며 참석자들과 함께 일면 스님의 산수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은혜에서 나눔으로”

80년 삶의 자취 담겨



최근 출간된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는 일면 스님의 팔십 평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이다. 어린 시절부터 출가와 수행, 종단 교육과 행정, 포교와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스님이 걸어온 삶의 자취가 담겼다.

책의 중심에는 화려한 경력이나 직책보다 ‘은혜’와 ‘생명’에 대한 성찰이 자리한다. ‘나는 누구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 돌려줄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특히 일면 스님은 2000년 간 이식을 받은 뒤 얻은 새로운 삶을 생명나눔 실천으로 회향해 왔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고, 새 삶을 얻은 사람이 다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불교의 자비와 회향의 의미를 찾았다.

팔순을 맞아 자신의 삶을 돌아본 스님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인연을 ‘부처님’으로 기억한다. 자신이 이룬 성취보다 자신을 이끌어준 사람들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눔’을 강조한다.

스님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귀중한 날은 바로 오늘이며, 가장 소중한 자리는 바로 지금 이곳”이라고 말한다. 입적하는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회고록에 담았다.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는 생명의 의미와 삶의 회향에 관한 기록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생명을 어떻게 다시 세상에 돌려줄 것인지, 은혜를 어떻게 나눔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일면 스님의 답이기도 하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제17회 불암사 산사음악회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일시 |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

오프닝 12:45 ~ 13:00
불암사 합창단 I 마하무용단

본행사 13:00 ~ 13:30
일면장학금 전달식 I 생명나눔 장학금 전달식
치료비 전달식 I 인사말 및 축사

문화공연 13:30 ~
사회자 이익선 아나운서
출연진 가수 적우, 염유리, 황인아, 신명근, 마하무용단

부대행사
장기기증 캠페인 I 불암사 국화축제
불암사 신도회 먹거리 장터

사회자



이익선 아나운서

출연진



적우



염유리



황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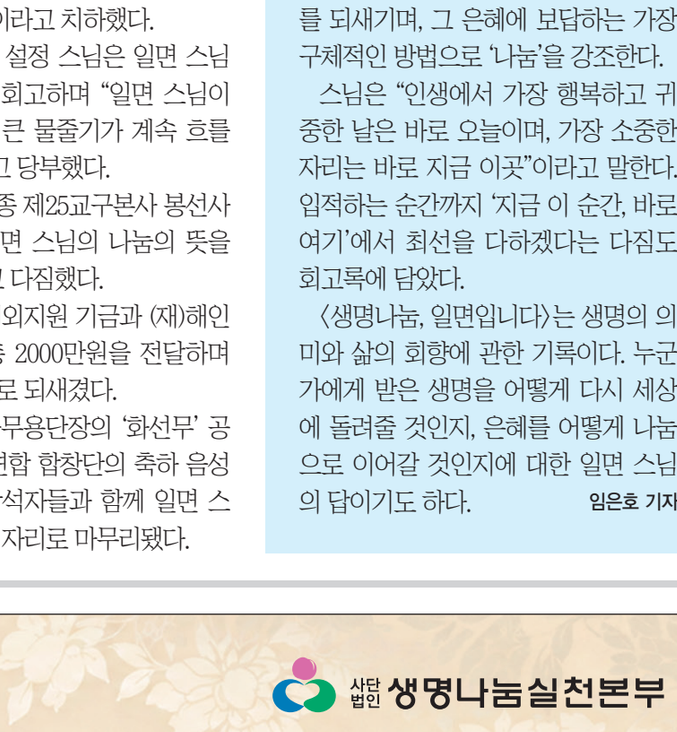
단장 정현숙



마하무용단



신명근



주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BBS 불교방송 | 협찬 문화체육관광부 남양주시 현대불교 법보신문 불교신문